

김민기(더불어민주당)의원 답변 전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9월 20일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2013년) 업무를 담당했던 보좌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아 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2013년 6월 26일 소방전문병원 설치 근거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6인)>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소방관 순직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저는 국회 안행위에서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접하고 소방병원 설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소방전문병원의 조속한 설치를 원했던 소방방재청은 2013년 9월 경, 소방전문병원 설치 당위성에 대한 내부자료가 있다며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해 줄 것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정책자료집으로 발간을 협의한 자료(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가 보내주신 2008년 소방방재청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분석 연구) 자료를 요약한 자료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이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또한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별도의 연구용역비로 지급된 것은 없고,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타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